서재응 이적 후 첫승 신고

선발 6경기만에 타선 도움 받아…시즌 3승째

서재응(27·탬파베이 데블레이스·사진)이 이적 후 선발 6경기만에 첫 승을 올렸다.

서재응은 30일(한국시간) 뉴욕 양키스 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로 나와 5.2이닝 동안 2홈런 포함 9피안타로 5실점했지만 타선의 지원 덕에 승리투수가 됐다.

탬파베이는 장단 16안타로 양키스 마운드를 두들겨 19점을 뽑아 창단 후 한 경기 최다득점에 타이를 이뤘다.

데이먼 홀린스는 5타점을 올렸고 토머스 페레스는 2루타 4발을 포함해 5타수 5안타로 맹타를 휘둘렀다.

서재응의 103개 투구 가운데 스트라이크는 64개였고 볼넷은 2개, 탈삼진은 1개였다.

LA 다저스에서 탬파베이로 둥지를 옮긴 뒤 5연패를 당하고 있다가 6번째 선발 등판만에 거둔 승리로 시즌 3승(9패)째다. 방어율은 종전 5.71에서 5.84로 오히려 올라갔다.

'빅유닛' 랜디 존슨과 선발로 맞붙은 데다 경기 시작부터 홈런을 얻어맞아 초반부터 부담스러웠지만 타선이 폭발적으로 터져 쉽사리 승리를 낚았다.

서재응은 1회말 1사에서 2번 타자 데릭 지터와 후속 제이슨 지암비에게 연속타자 홈런을 허용해 2점을 내줬다.

하지만 탬파베이는 2회초 디오너 나바로와 페레스의 적시타로 3점을 뽑아 역전, 서재응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서재응은 2회를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고 탬파베이는 3회초에 홀린스가 존슨으로부터 3점 홈런을 쏴올려 6-2로 달아났다. 서재응은 하지만 3회말 1사 1, 3루에서 호르헤 포사다에게 싹쓸이 2루타를 맞아 6-4로 쫓겼다.

그러나 탬파베이 타선은 4회초에도 다시 폭발, 4점을 추가했다.

서재응은 12-4로 앞선 6회 2사 1루에서 마운드를 존 스위처에게 넘겼고 스위처가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바람에 실점은 5점으로 늘었다.

탬파베이는 이후에도 7점을 더 뽑아 양키스를 19-6으로 완파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그레이 4연승

KIA, SK에 2-1 승

'용병투수' 세스 그레이 싱어(31)가 4연승을 질주하며 KIA호의 4강행을 밝혔다.

그레이는 30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SK전서 8이닝 4안타 1실점, 탈삼진 10개의 무결점 피칭으로 2-1 승리를 이끌었다.

그레이의 이번 승리는 지난 5일 두산전 7이닝 1실점, 12일 LG전 7이닝 1실점, 25일 6.2이닝 무실점 승리에 이은 4연승째다.

KIA는 이날 1회 1사 1,3루서 이재주 타석 때 상대 송구실책으로 3루주자 이용규가 홈을 밟으며 1점을 뽑아낸 뒤 2회에는 김상훈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3루서 이현곤의 유격수 앞 땅볼로 1점을 추가했다.

전날 13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KIA를 11-2로 침몰시켰던 SK는 이날 그레이의 호투에 밀려 공격다운 공격 한번 펼치지 못했고 7회초 박재홍의 솔로포로 겨우 '0'봉패를 면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0일 광주경기

SK

0	0	0	0	1
1	1	0	0	2

0	0	0	1	1
0	0	0	0	×

KIA

▲승리투수=그레이싱어(8승9패)
▲세이브투수=윤석민(3승3패7세이브)
▲패전투수=세라노(2승3패)
▲홈런=박재홍 14호(7회 1점, SK)

최홍만, 아케보노에 또 KO 승

최홍만이 30일 K-1 월드그랑프리 대회 리벤지 매치에서 일본 스모 요코즈나 출신인 아케보노를 다운시키고있다. /연합뉴스

'K-1' 리벤지 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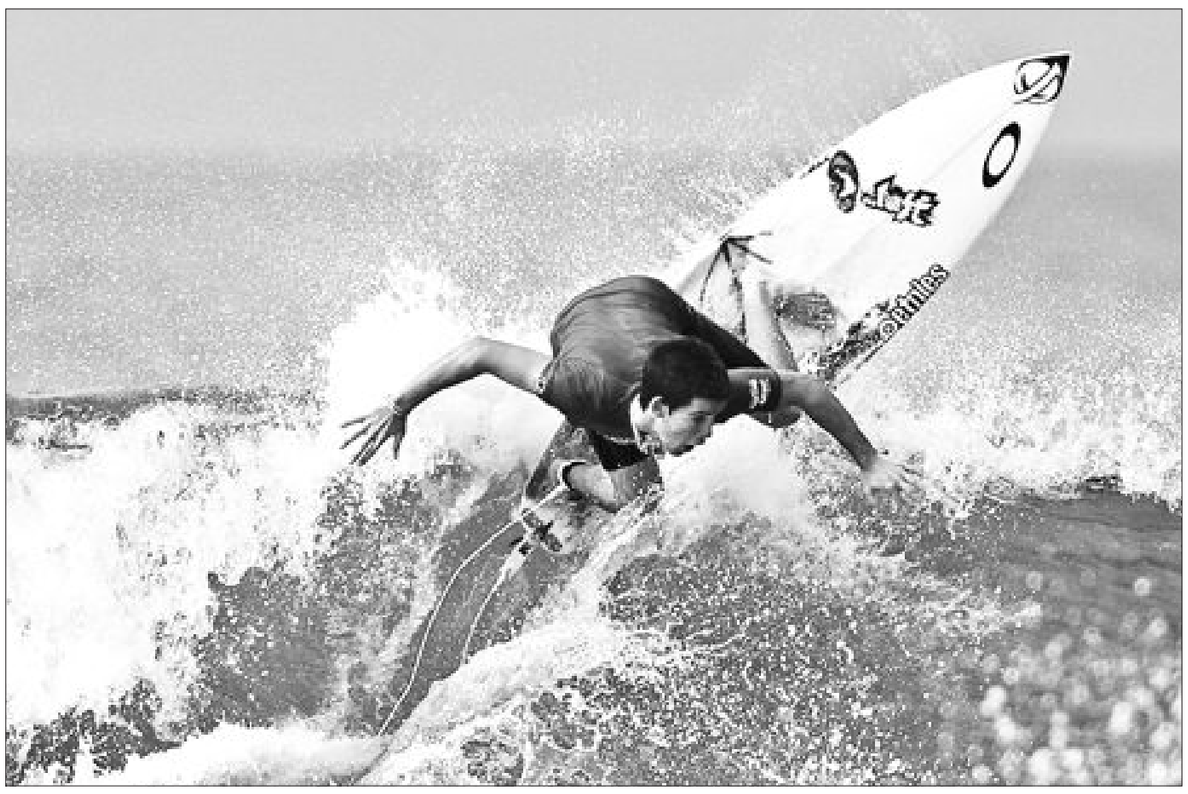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6)이 아케보노(37·일본)와 세 번째 맞대결에서 또 승리했다.

최홍만은 30일 일본 삿포로 마코마니아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삿포로' 대회 리벤지 매치에서 일본 스모 요코즈나 출신인 아케보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2회 57초만에 KO승을 거뒀다.

최홍만은 이로써 아케보노와 세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동시에 지난해 11월 K-1월드GP 8강전에서 레미 본야스키(네덜란드)에 패한 이후 3연승을 달렸다.

지난해 3월 K-1에 데뷔한 최홍만의 통산 전적도 9승(3KO·2TKO)1패가 됐다.

아케보노는 이날 패배로 종합격투기에서 1승9패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



"거친 파도일수록 좋다"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헌팅턴 해안에서 열린 US오픈 서핑챔피언대회에서 하와이출신 매이슨 호가 12번째 라운드에 도전해 멋진 포즈로 파도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택 결승 진출

한국 남자테니스의 희망 이형택(세계랭킹 98위·삼성증권)이 총상금 5만달러가 걸린 챌린저급대회 피프스서드뱅크 클래식 단식 결승에 올라 시즌 세번째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톱시드를 받고 출전한 이형택은 30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벌어진 4강전에서 루마니아의 호리아 데카우(406위)를 2-0(6-4 6-3)으로 제치고 결승에 진출, 미국의 아머 델릭(200위)과 우승을 놓고 일전을 벌인다.

北, 여자월드컵 본선행

심판 구타로 한때 물의를 일으킨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여자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북한은 30일 호주 애들레이드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대회 3-4위전에서 리은숙의 선제골과 혼자 두 골을 추가한 리은경의 활약을 앞세워 일본을 3-2로 제압했다.

이로써 북한은 3위를 차지하며 2007년 중국 여자월드컵 본선에 막차로 합류했다.

내년 여자 월드컵 티켓은 아시아에 3.5장(개최국 중국 포함)이 배정됐으며, 중국이 결승에 올라 3위인 북한까지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4위 일본은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3위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일본은 전반과 후반에 한 골씩 넣으며 반격에 나섰으나 북한의 압박 수비를 좀처럼 뚫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영표, '캠브리지'와 연습경기서 결승골

'초롱이' 이영표(29·토튼햄 핫스퍼)가 소속팀 복귀 후 처음 출전한 연습경기에서 결승골을 터트리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독일 월드컵 이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지난 24일 출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06~2007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이영표는 지난 29일 밤(이하 한국시간) 원정경기로 열린 5부 리그 캠브리지 시티와 연습경기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트려 2-0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38분 페널티 지역 왼쪽 모서리에서 제이미 오하라의 패스를 받은 이영표는 오른발 슈팅으로 골 그물을 출렁였다.

비록 2군 멤버들이 주축이 된 연습경기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토튼햄에 합류한 이후 이영표의 득점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중계

31일(월)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콜로라도〉(05 : 00·Xports)

▲프로야구 2군리그〈SK-현대〉(13 : 00·MBC ESPN)

▲한일 1,2학년 대학축구대회〈대한민국-일본〉(13 : 00·KBS SKY Sports)

▲제7회 전국 대학축구대회 결승전(15 : 00·KBS SKY Sports)